

U-20 축구대표팀 환영 행사

# 재치 있는 입담 '분위기 업'

이강인 "누나 소개시켜줄 정상적인 형들이 없다"  
팬 질문 답변 '웃음폭탄'  
정정용 감독 "선수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올라"  
문 대통령, 내일 초청 만찬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FIFA U-20 월드컵 대표팀 환영식에 이강인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 이날 정정용 감독이 환영식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축구 실력만큼 입담도 현란했다. '막내형' 이강인(18·발렌시아)을 비롯한 정정용호 선수들이 재치 있는 입담으로 팬들을 즐겁게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선수단을 위해 17일 낮 12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환영 행사를 열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팬들의 질문을 답하는 순서에서 재미있는 답변이 쏟아졌다.

특히 누나가 둘 있는 이강인은 "누나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형들이 있느냐"는 질문에 "형들이 (누나) 이야기를 많이 한다.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라며 잠시 고민하더니 "솔직히 아무도 소개해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래도 꼭 소개해야 한다면 (정)세진이 형이나 (엄)원상이 형을 해주고 싶다. 정상인 형들이다. (다른 형들은) 다들 비정상적이어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행사장에 웃음폭탄을 던졌다.

김현우(디나모 자그레브)는 우크라이나의 결승전에서 거친 플레이로 경고를 받을 상황이 되자 가벼운 포옹으로 심판을 '달랠지' 결국 옐로카드를 받았다.

애교 섞인 당시 행동을 다시 보여 달라는 주문에 이재익(강원)을 가볍게 포옹하며 해맑게 웃었다. "나는 애교가 없고, 과묵한 편

이다.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이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대회 내내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다 결승전 후반 30분에 투입돼 15분을 뒀던 이규혁(제주)은 "예산부터 결승까지 좋았다면 좋은 기억이지만 힘든 일도 많았다"면서도 "끝까지 믿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 특히 결승전에서 최고의 15분을 안겨준 감독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다.

고재현(대구)은 정 감독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요구하자 "(정)말 훌륭하신 (정)정용 감독님, 사랑해(응)"이라고 했다. 조영욱(서울)은 "(정)정용 감독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응)맹스롭게 해낸 우리들 모두 감독님께 감사하다"고 보였다.

이상준(부산)은 버스과 훈련장에서 가장 즐겨들었던 노래를 묻자 "지금 생각나는 노래는 '꿈파리 사바라'였다. 지금이 2019년인지 2000년대 초반인지 헷갈렸다. 옛날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냈다"고 했다. 노래를 부

르며 가벼운 춤도 선보였다.

김세운(대전)은 라커룸 분위기에 대해 "그라운드에 들어가기 전에는 분위기가 최상이었는데..."라고 했다가 주위의 눈치를 보곤 "라커룸 분위기는 항상 좋았다"고 말을 바꿨다.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독일 이중국적자인 최민수(함부르크)는 우리말이 서툴다.

그래도 "(독일에 가기 전에) 떡볶이, 김치 짜개, 불고기, 갈비를 많이 먹고 싶다. 독일에서는 운동을 쉽게 하는데 한국은 좀 힘들었다"고 꼬박꼬박 말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 마디를 부탁하자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사랑해요"라고 답했다.

아르헨티나 국적인 인창수 코치는 "나는 어릴 때,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서 아르헨티나 국적을 가지고 있다. 솔직히 조별리그 3차전(아르헨티나)을 앞두고 죽음의 조 얘기를 하면서 탈락할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우리 선수들이 아르헨티나를 이겨줘 매우 감사하다. 내가 아르헨티나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내 몸에는 역시 한국 피가 더 많이 흐르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정 감독은 "입금이 있어서 백성이 있는 게 아니고, 백성이 있어서 입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선수들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는 말로 많은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울림을 줬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폴란드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축구대표팀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격려 만찬에는 이강인·오세훈·조영욱·엄원상·이광연 등 준우승 주역인 11명의 선수들과 정정용 감독, 공우균·인창수·김대환·오성환 코치 등 사상 첫 FIFA 주관 대회 준우승을 이끈 코칭스태프 모두 참석할 전망이다. /뉴시스

## 해의 6개국 태권도 국가대표 태권도원에서 전지훈련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2019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7월3일~14일/이탈리아 나폴리) 참가국 중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 선수들의 전지훈련을 지원한다.

11일부터 네팔, 스리랑카, 모로코, 세네갈 등 6개국에서 온 40여명의 국가대표 선수단이 태권도원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까지 17일 동안 전지훈련이 진행된다.

태권도원 전지훈련에서는 품새와 겨루기 훈련을 비롯해 경희대학교·백석대학교·조선대학교·세한대학교 등 국내 태권도 선수단과의 합동훈련, 태권도원 수련 프로그램, 스포츠 테이핑 등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은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국가 간 태권도 기량 평준화와 다양한 국가가 메달을 획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태권도 겨루기 종목에 집중해 오던 아프리카 대륙 선수단을 대상으로 공인 품새와 자유 품새 등 품새 훈련을 실시해 품새 부문의 저변확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홍삼배 전국배드민턴대회 성료

진안군 배드민턴협회(회장 원하연)가 주관한 제10회 진안홍삼배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전국에서 40여개팀 1200여명의 동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안문예체육회관과 진안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틀간의 열띤 열전 끝에 ▲준자강은 전주 불수 ▲남북(A그룹)은 정읍 수성(30대), 전주 불수(40대), 전주 전곡민턴(50대)이 정상에 올랐고 ▲여북(A그룹)은 전북 전주(30대), 익산 탐남민턴(40대), 전주 신동(50대) ▲홍북(A그룹)은 남원 교룡(30대), 경남 거창에이스(40대), 전주 신우천(50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배드민턴 저변확대와 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창설된 이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100여개에 달하는 배드민턴 대회가 열리는데 동호인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음에도 이 대회에 꾸준히 참가클럽과 선수들이 늘고 있다.

진안군은 올해에만 배구와 배드민턴, 탁구 등 크고 작은 32개 대회를 유치하고 있어 생활 스포츠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전북 선수들 전국 육상경기대회 성적 '우수'

전개공·전북체고 메달 획득... 김민지 멀리뛰기 정상 차지·오지영 여자 일반부 800m 3위 등

전북 선수들이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17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최근 경북 김천에서 열린 '제47회 KBS배 전국 육상경기대회'에서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체고

육상부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 김민지는 여자 일반부 멀리뛰기에서 6m15를 기록해 정상에 올랐다.

김민지는 지난 5월에 열린 제48회 전국종별 육상경기대회 우승에 이어 또다시 1위 자리에

올라 최강임을 부각시켰다.

또 같은 팀의 오지영은 여자 일반부 800m에서 2분16초로 3위를 차지했다.

이 대회에 출전한 전북체고도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의 수확을 거뒀다.

남고부 해머던지기 이희영과 세단뛰기 유규민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이희영과 유규민은 올해 출전하고 있는 모든 대회에서 1위를 거두는 등 최고의 실력을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원반던지기 김윤서는 은메달을 800m의 김진태는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선수들의 노력으로 일반부·고등부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의 전망도 밝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